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방일단 (제 1~2 단) 초빙 사업 기록

1. 프로그램 개요

【목적·개요】 ‘일본 이해 촉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 전역에서 선발된 젊은 교육 관계자 등 62명이 2026년 6월 1일부터 7일까지, 향후 일한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 관계 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방일하였습니다. 방일단은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15년, 일본의 방재교육과 교육 현장 시찰’이라는 주제 아래 도쿄도, 미야기현, 이와테현을 방문하였습니다. 각종 시찰, 일본의 교육 관계자 등과의 교류, 주제에 따른 강의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한편, 프로그램 중의 배움과 방문지의 매력에 대해 SNS 등을 통해 발신하였습니다.

【참가자】 한국 교육 관계자 총 62명

【방문지】 도쿄도 62명, 이와테현 61명, (제1단) 미야기현 29명)

【일정】

■ 사전 프로그램(온라인 사전 학습):

2026년 5월 15일(금) 오리엔테이션(프로그램 설명), 참가자의 대외 발신

■ 초빙 프로그램:

2026년 6월 1일(월) 나리타 국제공항 입국, 【강의】 문부과학성 ‘일본의 초등·중등 교육에 대하여’
2026년 6월 2일(화) ~ 4일(목)

2개 단으로 나뉘어, 제1단은 도쿄도, 미야기현, 이와테현을, 제2단은 도쿄도, 이와테현을 방문.

이와테현 내에서 함께 홈스테이를 실시한 후, 6월 6일 도쿄도로 이동

(1) 제1단: 도쿄도, 미야기현, 이와테현

【학교 방문·교류】 세타가야구립 교도 초등학교 (모의 수업 포함)

【주제 시찰①: 일본의 방재 교육】 방재 체험 학습 시설 소나 에리아 도쿄

【시찰】 고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현장 필드워크

【학교 방문·교류】 분교구립 고비나타다이마치 초등학교(급식 체험, 모의 수업 포함)

【주제 시찰②~④: 일본의 방재 교육】 이시노마키시 지진재해 유구 오카와 초등학교 ‘진재를 둘러싼 현상과 교훈’, 미야기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전승관, 이시노마키시 지진 재해 유구 가도노와키 초등학교 “쓰나미 화재의 흔적을 간직한 유일한 지진 재해 유적”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2) 제2단: 도쿄도, 이와테현

【주제 시찰①: 일본의 방재 교육】 도쿄도 기타구 방재센터 ‘지진 과학관’

【학교 방문·교류】 도쿄실업고등학교 (모의 수업 포함)

【시찰】 고 이수현 씨 추도·현창비 포함 신오쿠보 현장 필드워크

【학교 방문·교류】 분교구립 제9중학교 (급식 체험, 모의 수업 포함)

【주제 시찰②~④: 일본의 방재 교육】 산리쿠 철도 지진 학습 열차 (가마이시역~모리역),
리쿠젠타카타시 지진재해 유구 계센 중학교,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전승관(이와테
TSUNAMI 메모리얼), 리쿠젠타카타시 지진재해 유구 기적의 소나무 등

【교류】 홈스테이 대면식

2026년 6월 5일(금) 종일 홈스테이

2026년 6월 6일(토) 【교류】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한단 과거 참가자들과의 좌담회
성과 보고회(방일 성과·귀국 후 활동 계획 발표)

2026년 6월 7일(일) 나리타국제공항에서 출국

2. 기록사진

	
2026년 6월1일 【강의】 문부과학성 ‘일본의 초·중·고등 교육에 대하여’	2026년 6월2일 【시찰】 도쿄도 기타구 방재센터 ‘지진 과학관’
	
2026년 6월3일 【학교 방문·교류】 분교구립 고비나타다이마치 초등학교(운동회 연습을 견학하는 모습)	2026년 6월3일 【학교 방문·교류】 분교구립 제9중학교 (소속 일본 교원과의 교류 모습)

	
2026년 6월4일 【시찰】 이시노마키시 지진재해 유구 오카와 초등학교 ‘진재를 둘러싼 현상과 교훈’	2026년 6월4일 【시찰】 리쿠젠타카타시 지진재해 유구, 게센 중학교
	
2026년 6월5일 【교류】홈스테이 중에 이치노세키 시립 무로네 중학교 방문(한국 교사의 모의수업 모습)	2026년 6월6일 【교류】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한단 과거 참가자와의 좌담회

3. 참가자 소감 (발체)

◆ 한국 교사

전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일반적인 여행으로는 가기 힘든 일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일본 선생님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홈스테이도 개인 여행으로는 얻을 수 없는 기회라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일본의 교육, 방재,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한국과 비교하며 일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차이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 한국 교사

이번 주제에 정말 잘 맞는 장소를 방문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하여 일본의 방재 시스템을 알 수 있었고, 이를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는 실제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방재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싹터 우리 참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 한국 교사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일본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 교사, 지역 주민들과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도쿄도 분교구립 제9중학교와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립 네

무로 중학교를 방문했을 때, 통역 없이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국의 학교 문화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이 언어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와테현 내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과 방재 시설을 방문하여 생존자와 지역 주민들의 실제 체험담을 듣는 과정을 통해, 방재 교육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방문, 교원 교류, 홈스테이, 지역 사회 탐방 등 모든 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일본 사회와 교육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한국 교원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일본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수업에서도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 현장을 시찰하며 배운 점과 느낀 점이 많았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일본에 대해 책이나 언론을 통해 배우는 것보다 실제로 현지를 방문하여 직접 경험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이해가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일본 분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며, 일본의 국민성과 문화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매우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4. 일본측 소감 (발체)

◆ 분교구립 고비나타다이마치 초등학교 미조하타 나오키 교장

태풍 6호로 인한 폭우 속에서 방일단을 맞이했습니다. 의욕 있는 한국 선생님들과의 교류 속에서 아이들과 교직원 모두 많은 것을 배우며 알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6학년 운동회 연습을 참관하신 후 “6년간의 성장을 보는 기분이다”라고 말씀하신 선생님께서 계셨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그 속에서 기쁨을 찾는 교사의 마음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에 기뻐합니다. 귀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분교구립 제9중학교 방일단 담당 교사 (2025학년도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한단 참가)

작년에 상호 교류 사업인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한단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올해는 한국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본교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본교 학생과 교직원에게도 매우 좋은 풀뿌리 문화교류가 되었습니다. 같은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한국 선생님들의 시선은 언어의 차이를 넘어 본교 학생들의 장점을 이해하며 양국 교직원 간의 깊은 교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같은 급식을 함께 하며 표정이나 바디랭귀지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눈 소중한 시간은 미래 양국의 더욱 발전된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도쿄실업고등학교 방일단 담당 교사 (2024년도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한단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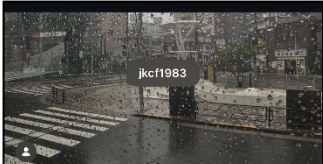
이번에 한국 선생님들을 본교에 모시고 학교 견학 및 학생 대상 수업, 방과 후 의견 교환회를 실시했습니다. 교과서를 서로 보여주며 각자의 교육 내용과 지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교육 제도와 수업 실천의 차이를 접하는 동시에 나라는 달라도 공통된 교육 과제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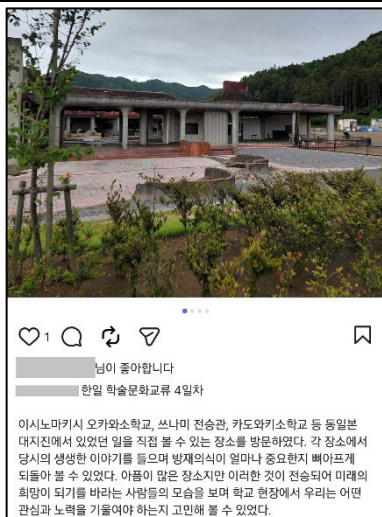
두에게 많은 자극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향후 교육 활동으로 이어질 귀중한 교류가 되었습니다.

◆ 좌담회 참가자 (2023년도 일한학술문화교류사업 방한단 참가)

좌담회에서는 한국 선생님들과 일한 교육의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 방한 당시의 일화와 방한 후 학교에서 진행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한편, 한국 선생님들의 이번 방일 소감과 인상 깊었던 점에 대해서도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좌담회 후에는 몇몇 일한 선생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도 교류를 계속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교류의 소중함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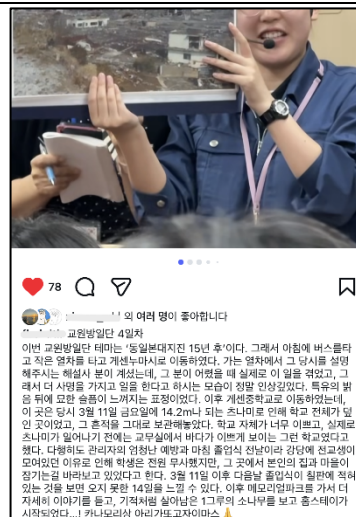
5. 참가자의 대외발신(발체), 보도자료 등

일본 고하나타다이마치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태풍으로 인해 비가 많이 내리는 국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전 교직원과 전교생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큰 감동을 받았다. 진심 어린 환대 덕분에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운동회를 앞두고 학생들아만스게임을 연습하는 모습을 참관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한국의 초등학교 생활을 소개하고 딱지치기 활동을 활용한 모의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반응을 기대 이상으로 좋았다. 45분 내내 예의바르고 공손한 태도로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jkcf1983님이 공동 작업자로 초대되었으나 아직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jdore919 수요일 새벽부터 태풍 영향권이 된 도쿄. 다이쿠 중학교에 방문을 못했는데 태풍을 뚫고 간신히 방문을 함. 방한 경험이 있는 미술교사인 다이쿠쿠 섬과 교장선과 교직원 일동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심. 다이쿠 중학교는 개인정보에 민감해서 선생님들 모의수업 촬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급식표와 교복이 인상적이어서 살짝. 급식은 소박했지만 건장한 음식이었고 특히 고등어를 데리야게 소스에 끓인 것이 꽤 맛있었다. 급식지를 끌고 1학년 3반 교실에 가서 학생들과 먹었다. 우리나라 중1학생들처럼 학생들이 귀엽고 조잘조잘 한국어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영어는 잘한다. 내가 일본어로 인사하니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함. 학생들이 생선을 좋아하고 편식을 안함. 먹고 나서 우유팩을 정갈히 찢어 찢아놓고 마무리 정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에서 질서 교육과 생활교육이 잘 되어있다 생각함.
2026년 6월 3일 (Facebook) 고히나타다이마치 초등학교를 방문했다.(중략) 운동회를 앞두고 연습하는 모습을 참관했다.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뒤에서 묵묵히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노고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은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2026년 6월 3일 (Instagram) 방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계신 분교구 다이쿠 중학교를 방문했다.(중략) 저는 1학년 교실에 가서 학생들과 먹었다.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조잘조잘. 한국어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영어는 잘한다. 내가 일본어로 인사하니 너무 신기해하고 좋아함. 학생들이 생선을 좋아하고 편식을 안함. 먹고 나서 우유팩을 정갈히 찢어 찢아놓고 마무리 정리를 철저히 하는 부분에서 질서 교육과 생활교육이 잘 되어있다 생각함.



2026년 6월 4일 (Instagram)

이시노마키시 오카와 소학교를 방문해, 각 장소에서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방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아프게 되돌아볼 수 있었다. (중략) 이러한 것이 전승되어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학교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해 볼 수 있었다.



2026년 6월 4일 (Instagram)

산리쿠 철도 진재 학습 열차 승차 시에 해설사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실제로 이 일
을 겪었고, 그래서 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한다
고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 특유의 밝
음 뒤에 묘한 슬픔이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이
후 계센중학교로 이동하였는데, 이곳은 당시 3
월 11일 금요일에 14.2m나 되는 쓰나미로 인해
학교 전체가 덮인 곳이었고, 그 흔적을 그대로
보관해놓았다. (중략) 다행히도 관리자의 엄청난
예방과 아침 졸업식 전날이라 강당에 전교생이
모여있던 이유로 인해 학생은 전원 무사했지만,
그곳에서 본인의 집과 마을이 잠기는 걸 바라보
고 있었다고 한다.



2026년 6월 6일 (이와테니치니치신문)

“한국 문화와 가치관 전달… 무로네 중학교,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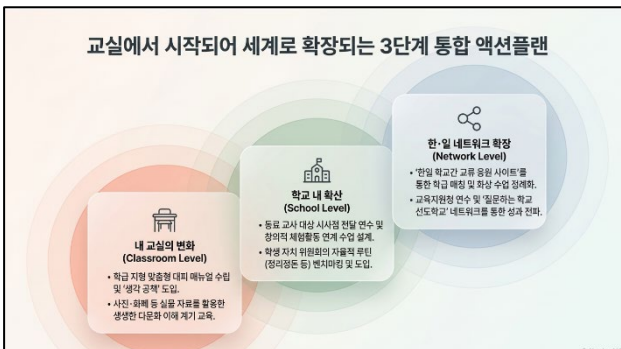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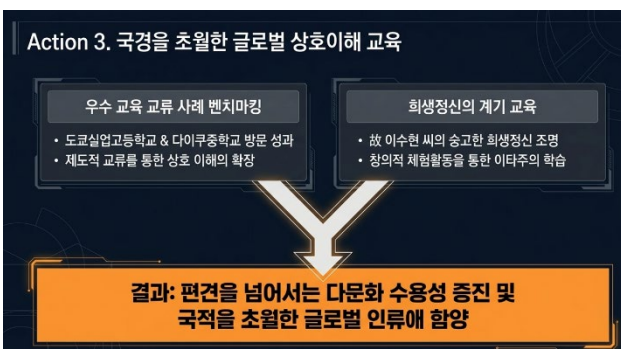


2026년 6월 8일 (이와테일보)

“웅장한 사자춤, 문화에 친숙해져…일한 교류로

본을 방문 중인 교사가 특별 수업” 이치노세키 시립 무로네 중학교에서 1~3학년 교실에서 모의 수업을 진행하고, “한국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 문화에 친숙함을 느끼고 있다”, “나라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 등을 소개.	교사들이 관람” 한국의 젊은 교사들이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시찰 등을 통해 일본의 방재 교육을 배우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사실을 소개, 방일 기간 중 이치노세키시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현지의 향토 예능인 사자춤을 관람하고 일본의 전통문화와 양국의 문화적 유사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했다는 내용 소개.
--	--

6. 보고회에서의 방일성과와 액션플랜 발표 (개요 또는 발체를 기재함)

 교실에서 시작되어 세계로 확장되는 3단계 통합 액션플랜 내 교실의 변화 (Classroom Level) • 학교 지형 및 동선 등 지도 매뉴얼 수립 및 '생각 공학' 도입. • 사진·화해 등 실용 자료를 활용한 생생한 다문화 이해 계기 교육. 학교 내 확산 (School Level) • 동료 교사 대상 시차형 전달 연구 및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수업 설계. • 학생 자치 위원회의 자율적 추진 (장미장 등) 벤치마킹 및 도입. 한·일 네트워크 확장 (Network Level) • '방일 학교간 교류 응원 사이트'를 통한 적극 매칭 및 화상 수업 참여. • 교육지원청 연구 및 '일본어는 학교' 선도학교 네트워크를 통한 성과 전파.	 Action 3.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상호이해 교육 우수 교육 교류 사례 벤치마킹 • 도쿄실업고등학교 & 다이쿠중학교 방문 성과 • 제도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확장 희생정신의 계기 교육 • 故 이수현 씨의 숭고한 희생정신 조명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이타주의 학습 결과: 편견을 넘어서는 다문화 수용성 증진 및 국적을 초월한 글로벌 인류애 함양
【성과 발표】 • 지진재해 유구 오카와 초등학교와 가도와키 초등학교를 시찰하며, ‘(교사의) 1분의 판단 지연이 생사를 가른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실감했습니다. 매뉴얼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전 훈련의 중요성을 재인식했습니다. • 일본에서는 ICT 교육 속에서도 ‘손글씨로 사 고의 흔적을 남긴다’는 학습 습관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내 비품을 학생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일상적인 작은 습관을 통해 학생들의 자치와 자립심이 길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 니다. • 홈스테이와 학교 방문을 통해 느낀 일본인들의 친절함과 타국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태도에서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을 넘어 한일 양국 의 교실 안에서 시작되는 미래 세대의 굳건한 연대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성과 발표】 • 학교 방문 당시 특별지원학급을 견학할 기회를 얻어 일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눈을 마주보며 이야기하고,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추는 등)를 보고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를 개선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 학교 방문을 통해 급식 시간이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장소가 아니라 식생활 교육의 장으로 활용 되고 있다는 점, 교내에 재해 발생 시를 대비한 비품 창고가 있고, 재난 시에는 지역 주민들의 대피소 역할을 한다는 점 등을 보며 역시 ‘방재 의 나라 일본’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 지진재해 유구 게센 중학교를 시찰하며 학생 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교실과 운동장이 이 러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크 게 흔들렸습니다. 역사는 책 속의 이야기가 아 니라 누군가의 인생이자 가족이며 꿈이라는 사 실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액션 플랜】 • 각 학급의 특성에 맞춘 대피훈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고의 과정을 기록하는 ‘사고 노트’를 도입하는 한편, 사진 등 실물 자료를 활용한 국제 이해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 동료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방일 성과보고회를 실시하고 창의적인 체험 활동을 접목한 수업 설계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 초등학교의 위원회 활동을 참고한 자율적인 루틴을 도입하겠습니다. •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운영하는 ‘한일 학교간 교류 응원 사이트’를 활용해 일본 학교와의 온라인 교류 수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한국 내 다른 학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방문 성과를 널리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액션 플랜】 • 과거 한일 역사와 관계에 대해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번 교류 프로그램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 돌아가면 앞으로의 역사를 만들어갈 세대에게 기억을 계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나가겠습니다. • 교내 방재 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이번에 배운 내용을 교직원들과 공유하여 설비 및 지식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일한문화교류기금이 운영하는 ‘한일 학교간 교류 응원 사이트’에 등록하여 국경을 초월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실시단체명 :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